칼럼

0

[현지 취재] '네비올로 프리마 2025'로 살펴본 피에몬테 4개년 빈티지 분석

[12월 초 알프스가 보이는 피에몬테 포도밭]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변덕스러운 서리까지 최근 피에몬테를 덮친 극한 기후는 테루아의 경계를 흐릴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하지만 30주년을 맞이한 '네비올로 프리마(Nebbiolo Prima) 2025'에 모인 전 세계 와인 전문가들이 목격한 실체는 달랐다. 3일간 144종 와인을 블라인드 시음으로 확인한 네비올로 품종의 위대한 적응력, 각 마을과 MGA 정체성 분석을 공유한다.

[사진 제공: 얄베이사]

네비올로 프리마: 피에몬테의 자부심이 빚어낸 30년의 기록

알베이사(Albeisa, 1973년 레나토 라티의 비전 아래 피에몬테 와인의 위상 제고를 위해 설립된 생산자 조합)가 주관하는 '네비올로 프리마(Nebbiolo Prima)'는 단순한 시음회를 넘어, 그해 네비올로의 운명을 가장 먼저 점치는 엄숙한 의식과도 같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이 행사는 바롤로(Barolo), 바르바레스코(Barbaresco), 로에로(Roero) 와인의 공식적인 국제 프리뷰 무대로서 랑게와 로에로 지역의 위대한 와인 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알베이사의 역사는 그 자체로 피에몬테 와인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알베이사 병'과 궤를 같이한다. 18세기 초, 알바 지역 생산자들이 자신의 와인을 차별화하기 위해 고안했던 이 독특한 병 모양은 1973년 16명의 생산자가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부활했다. 어깨 부분에 'Albeisa'라는 문구가 네 번 각인된 이 병은 이제 라벨을 보지 않고도 고귀한 원산지를 증명하는 대사가 되어 전 세계 다섯 대륙을 누비고 있다.

모든 시음은 알베이사의 주도하에 철저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미각을 통해 각 마을(Commune)과 개별 밭(MGA)이 품은 테루아의 정체성을 가감 없이 기록한다. 이는 기후 위기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도 네비올로라는 품종이 어떻게 땅의 목소리를 지켜냈는지, 그리고 생산자들의 인내가 어떤 결실을 보았는지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현재 318명의 회원을 보유한 알베이사가 정성껏 차려낸 144개의 잔에는 랑게와 로에로 지역이 지켜온 수세기의 자부심과 미래를 향한 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2023년 빈티지 총평: 반전의 드라마가 쓴 생동감

2023년은 피에몬테 생산자들에게 '인내와 기술'이 요구된 도전적인 해였다. 초반의 극심한 가뭄은 5~6월의 폭우가 해소했으나, 곧이어 닥친 7월의 우박과 40°C 이상 기온이 올랐던 8월의 기록적인 폭염은 포도의 생육을 위협했다. 하지만 9월 이후 찾아온 큰 일교차와 맑은 가을 날씨가 반전을 이뤄냈다. 덕분에 네비올로는 이상적인 페놀릭 완숙도에 도달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2023년은 서늘한 빈티지의 전형은 아니지만, 놀라운 산도와 신선한 과실미를 보존한 '중간 바디의 세련된 와인'으로 탄생했다. 지나치게 무겁지 않아 접근성이 좋고 향기로운 스타일이 주를 이룬다.

Ⅰ. 로에로 2023: 반전의 일교차가 선사한 생동감

2023년 로에로는 7월의 극심한 우박으로 수확량이 줄어드는 타격을 입었으나, 모래 비중이 높은 테루아 덕분에 폭염 속에서도 신선함을 유지했다. 9월 이후 큰 일교차는 네비올로가 이상적인 완숙도에 도달하게 했으며, 결과적으로 산도가 살아있는 세련된 중간 바디의 와인들이 탄생했다.

[코무네(Commune) 및 MGA별 분석]

카날레(Canale): 직관적인 과실미와 접근성

잘 익은 검은 열매와 스파이스, 스모키함이 공존하며 지금 마시기에도 접근성이 좋은 스타일이다. 고운 파우더 느낌의 타닌과 붉은 체리 중심의 풍미가 인상적이다. 일부 와인은 힘이 다소 부족하고 시큼한 레드 베리 향이 스쳐 아쉬움을 남기기도 한다.

고보네(Govone): 여성적인 화사함과 숙성 잠재력

감초 향이 강렬하게 시작되어 잘 익은 체리와 라즈베리의 신선함으로 이어진다. 검은 체리 풍미와 세이보리한 느낌, 스파이시한 여운을 지녀 중기 숙성이 가능하다.

과레네(Guarene): 정교함의 극치

향수 같은 꽃향기와 감초, 농익은 체리 향이 우아하게 전해진다. 선이 고운 산미와 고운 입자의 타닌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매우 좋은 품질의 와인이다.

몬테우 로에로(Monteu Roero): 우아한 풍미의 집중도

· **MGA Bric Nota**: 감초와 붉은 열매, 말린 꽃향기가 살짝 올라오며 여리여리한 스타일을 보여준다. 산미가 부드럽고 붉은 체리 풍미가 가득해 품질이 우수하다.

프리오카(Priocca): 로에로의 단단한 골격

신선한 체리와 라즈베리, 말린 허브의 향이 돋보이며 즙이 느껴지는 풍미가 특징이다. 높은 산도와 알코올, 단단한 타닌이 조화를 이루는 매우 좋은 품질을 보여준다. 흙내음이 저변에 깔린 레드 체리 풍미와 짭짤한 여운이 매력적이다.

2023년 로에로는 우박이라는 시련을 딛고 '반전의 드라마'를 썼다. 특히 과레네와 고보네는 폭염의 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정교하고 세련된 선을 보여준다. 지금 당장 잔을 기울여도 좋지만, 상위 품질의 와인들은 셀러에서 5~10년 뒤 더 근사한 이야기를 들려줄 준비가 되어 있다.

II. 바르바레스코

2023년 바르바레스코는 마을별 지질학적 특성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네이베(Neive)와 트레이조(Treiso)의 고도 및 토양 차이가 와인의 개성을 갈랐다.

[코무네(Commune) 및 MGA별 분석]

알바(Alba): 섬세한 테루아의 표현

- **MGA Rizzi**: 꽃다발, 포푸리, 장미 꽃잎 향과 함께 미약한 타르와 감초 향이 어우러진다. 타닌은 다소 빡빡하지만 과실미와의 조화가 좋다.
- **MGA Sanadaive**: 수풀 향과 가죽 향이 유독 돋보이며, 오래된 책이나 한약에서 느껴지는 꼬릿한 복합미가 매력적인 매우 좋은 품질의 와인이다.

바르바레스코(Barbaresco Commune): 균형의 정석

석회질 토양 특유의 섬세함과 구조감의 균형이 뛰어나다.

- **MGA Ovello**: 석회질 풍부한 오벨로 특유의 강한 타닌과 높은 산도가 선명하다. 붉은 과실과 숲 바닥의 뉘앙스가 공존하는 정통파 스타일이다.
- **MGA Rabajà**: 2023년 빈티지에서 가장 뛰어난 집중력을 보여준다. 단단한 구조감과 높은 알코올에도 네비올로 특유의 투명함을 잃지 않았다.
- **MGA Rio Sordo**: 잘 익은 레드 베리와 라즈베리 풍미가 화사하며, 유연한 타닌 덕분에 지금 마시기에도 매력적이다.

네이베(Neive): 구조감과 화려함의 조화

전통적으로 가장 파워풀한 스타일을 내는 네이베는 2023년에도 그 명성을 유지했다.

- **MGA Basarin**: 모래 섞인 이회토의 특성을 반영해 우아한 꽃향기와 잘 익은 붉은 과실미가 압도적이다. 부드러운 타닌과 높은 산도가 매력적인 매우 좋은 품질을 보여준다.
- **MGA Bordini**: 말린 과일 향이 살짝 스치며, 둥글고 접근성 좋은 타닌을 지녔다.
- **MGA Cottà**: 허브와 감초 등 스파이시한 뉘앙스가 강하다. 2023년의 열기를 이겨낸 듯한 집중도 있는 타닌과 긴 여운을 보여준다.
- **MGA Gaia-Principe**: 숙성된 흙과 지하실 냄새, 붉은 열매 향이 공존하지만 타닌이 다소 빡빡하게 느껴져 아쉬움을 남긴다.
- **MGA Gallina**: 투명한 루비색에 화사한 꽃향기와 잘 익은 레드 체리, 샤워 체리의 풍미가 돋보인다. 입안에서 조이는 듯한 타닌이 인상적인 좋은 품질의 와인이다.

• **MGA San Cristoforo**: 검은 열매와 감초, 스윗 스파이스의 향이 응축되어 있다. 입안을 채우는 풍부한 즙과 붉은 체리의 뉘앙스가 미묘한 짠맛과 어우러진다.
• **MGA Serragrilli**: 검은 열매, 가죽, 수풀 등 다양한 향의 레이어가 인상적이다. 탄탄한 골격을 지니면서도 부드러운 질감을 잃지 않은 수준 높은 품질이다.

트레이조(Treiso): 고도의 신선함

평균 고도가 높은 트레이조는 2023년의 폭염 속에서도 산도를 지키는 데 유리했다.

• **MGA Casot**: 검은 과실과 스파이스가 주도하며, 정갈하고 깔끔한 마무리가 돋보이는 모던한 스타일이다.
• **MGA Marcarini**: 담배와 레드 베리가 어우러진 복합적인 아로마를 가졌다. 타닌과 과실 무게감의 밸런스가 매우 뛰어나다.
• **MGA Meruzzano**: 오크 터치와 말린 허브의 조화가 특징이다. 부드러운 질감을 선호하는 층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다.
• **MGA Valeirano**: 가죽, 주니퍼 등 숲의 향기가 층층이 쌓여 있으며 강한 타닌과 산도가 조화를 이룬다.

피우 코무니(Più Comuni): 블렌딩의 묘미

개별 테루아의 특정함보다는 여러 마을의 포도를 섞어 빈티지의 파고를 유연하게 넘긴 사례다. 농밀한 붉은 열매 향에 강한 타닌을 지니며, 일부 와인은 벌써 숙성 향이 올라온다.

2023년 빈티지는 생산자의 세심한 관리가 빛을 발한 해다. 폭염의 흔적인 농축미를 지니면서도, 가을의 일교차가 선물한 산미 덕분에 와인은 여전히 생기 넘친다. 지금 바로 즐기기에도 부족함이 없지만, 주요 MGA 와인들은 10~15년 이상의 숙성도 거뜬히 견딜 힘을 보여준다.

[사진 제공: 알베이사]

2022 빈티지 총평: 가뭄이 빚어낸 역설, 응축된 네비올로의 힘

2022년은 피에몬테 와인 역사상 가장 뜨겁고 건조했던 해 중 하나다. 겨울부터 이어진 강수량 부족과 여름의 기록적인 폭염은 생산자들에게 거대한 도전이었으나, 네비올로는 다시 한번 이 땅과의 깊은 유대감을 증명했다. 포도나무는 스스로 성장을 늦추고 알 크기를 줄여 응축도를 높이는 전략을 택했고, 결과적으로 예년보다 작지만 껍질 비율이 극대화된 포도가 수확되었다.

이로 인해 2022년 와인들은 탄탄한 구조감과 높은 알코올, 그리고 강력한 안토시아닌 축적을 바탕으로 한 풀바디 스타일로 완성됐다. 단순히 '더운 해'의 결과물이 아니라, 극한의 환경이 빚어낸 농축미의 정수라 할 만하다.

Ⅰ. 로에로 리세르바 2022: 모래 토양 위로 흐르는 강건함

2022년 로에로는 가뭄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높은 응축감을 보여주면서도, 모래 토양 특유의 화사함을 잃지 않았다. 리세르바급 와인답게 긴 숙성 기간을 견뎌낼 충분한 에너지를 머금고 있으며, 극한의 환경이 빚어낸 농축미의 정수를 보여준다.

[코무네(Commune) 및 MGA별 분석]

카날레(Canale): 선 굵은 묵직함

2022년의 열기를 반영하듯 가죽, 버섯, 부엽토 등 어두운 톤의 풍미가 층층이 쌓여 있다. 묵직한 바디감과 검은 과실 풍미가 인상적이지만, 일부 와인에서 과도한 오크 사용으로 인한 훈제 향이 과실미를 압도하는 점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몬타(Montà): 치밀한 구성과 미식적 완성도

이번 빈티지에서 가장 수준 높은 구성을 보여주는 마을이다. 가넷 림이 돋보이는 루비색으로 흙내음과 말린 감초 향이 지배적이며, 짠맛을 동반한 레드 체리 풍미와 탄탄한 구조감을 지닌 매우 좋은 품질의 와인들이 관찰된다.

・ **MGA Sterlotti**: 타르와 감초, 말린 꽃향기 등 네비올로의 전형적인 풍미가 치밀하게 얽혀 있다. 농축된 레드 체리와 포푸리 향이 압도적이며, 유연한 타닌과 미묘한 짠맛이 산도와 조화를 이루는 매우 좋은 품질의 와인이다.

몬테우 로에로(Monteu Roero): 우아함과 힘의 조화

잘 익은 체리와 야생 붉은 열매의 풍미가 비릿한 미네랄리티와 어우러지며, 미드 팔렛이 살짝 비는 점은 아쉽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 **MGA Ciabot San Giorgio**: 수풀, 낙엽 등 어두운 뉘앙스의 스파이스와 나무 향이 특징적이다.

S. 스테파노 로에로 (S. Stefano Roero): 직관적인 풍요로움

흙내음과 레드 체리 풍미를 산도가 잘 받쳐주고 있으며, 휘발산이 살짝 느껴지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품질을 보여준다.

・ **MGA Gorrini**: 잘 익은 과실에서 오는 달콤한 향과 강렬한 감초 향이 주도적이다.

2022년 로에로 리세르바는 뜨거운 해의 기록이다. 모래 토양인데도 몬타(Montà) 지역 와인들처럼 웅장한 구조와 치밀한 농축미를 보여주는 사례들이 고무적이다. 지금 마시기에는 여전히 단단한 타닌이 장벽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이는 곧 위대한 숙성을 위한 약속이다. 인내심을 갖고 셀러에 보관한다면 훗날 웅장한 서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Ⅱ. 바롤로 2022: 극한의 테루아가 빚어낸 서사시

2022년 바롤로는 단순히 뜨거웠던 해의 기록이 아니다. 가뭄이 빚어낸 극한의 응축미를 네비올로가 얼마나 우아하고 강력하게 풀어낼 수 있는지 보여준 기념비적 빈티지다. 포도나무는 스스로 성장을 늦추고 알을 줄여 응축도를 높였으며, 그 결과 탄탄한 구조감과 강력한 에너지를 지닌 풀바디 스타일로 완성되었다.

[코무네(Commune) 및 MGA별 분석]

일부 MGA에 'Vigna'가 붙는 와인들은 해당 단일 밭(MGA) 중에서도 생산자가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최상위 구획'에서 수확했음을 의미한다. 2022년과 같은 극한의 빈티지에서 특정 'Vigna'들이 보여준 압도적인 퍼포먼스는, 테루아를 세분화해 관리하는 '정밀 포도 재배'의 승리라 할 만하다.

바롤로(Barolo Commune): 전통적인 균형과 미네랄

- **MGA Boschetti**: 섬세한 아로마와 매끄러운 타닌이 돋보이며 균형미가 탁월하다.
- **MGA Bricco delle Viole**: 민트와 솔, 붉은 과실의 조화가 신선하며 세련된 질감을 보여준다.
- **MGA Cannubi**: 오크 향과 감초, 스파이스가 어우러지며 칸누비 특유의 화려함을 탄탄하게 지지한다.
- **MGA Liste**: 강력한 구조감과 깊이 있는 미네랄리티가 테루아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 **MGA Ravera**: 단단한 타닌과 높은 산도의 긴장감이 돋보이는 장기 숙성형 와인이다.
- **MGA Sarmassa**: 휘발산과 잘 익은 과실 향이 공존하며 풍성한 볼륨감이 특징이다.

카스틸리오네 팔레토(Castiglione Falletto): 정교함의 정수

- **MGA Bricco Boschis**: 가죽과 타르 등 복합적인 아로마가 층층이 쌓여 있고 마무리가 매우 깨끗하다.
- **MGA Montanello**: 2022년의 열기 속에서도 과실의 순수함을 잃지 않으며 탄탄한 구조를 갖췄다.
- **MGA Parussi**: 강한 휘발산과 감초, 검은 과실이 어우러지며 남성적인 힘을 보여준다.
- **MGA Rocche di Castiglione**: 향수 같은 꽃향기와 잘 익은 붉은 과실의 조화가 탁월하며 매끄러운 질감을 자랑한다.
- **MGA Villero**: 붉은 꽃, 고기, 이끼 등 복합미가 뛰어나며 철분 같은 미네랄리티가 테루아를 증명한다.

라 모라 (La Morra): 우아함과 힘의 새로운 임계점

- **MGA Arborina**: 농밀한 감초와 나무 향이 지배적이며 잘 정제된 타닌이 긴 여운을 남긴다.
- **MGA Boiolo**: 향의 강도가 뛰어나며 타르와 버섯 향이 층층이 쌓인 복합미가 인상적이다.
- **MGA Bricco Rocca**: 검은 열매와 스파이스, 타르 향이 조화롭고 입안을 가득 채우는 풍성함이 일품이다.
- **MGA Brunate**: 스파이시한 풍미와 긴 여운이 특징이며 붉은 과실의 집중도가 매우 높다.
- **MGA Conca**: 잘 익은 검은 과실 향을 중심으로 직관적이고 풍요로운 스타일을 추구한다.
- **MGA Gattera**: 약간의 휘발산과 감초 풍미가 어우러진 개성 있는 스타일이다.
- **MGA La Serra**: 마른 꽃과 레드 베리의 풍미가 정갈하며 부드러운 질감이 매력적이다.
- **MGA Rocche dell'Annunziata**: 화사한 꽃향기와 검은 과실, 숲 바닥의 뉘앙스가 공존하는 빈티지의 정점이다.
- **MGA Serradenari**: 고지대의 이점을 살려 산도가 잘 뒷받침되어 신선함을 유지하고 있다.

몬포르테 달바 (Monforte d'Alba): 압도적 구조와 에너지의 분출

- **MGA Bricco San Pietro**: 선명한 검은 열매 풍미가 훌륭하며 오크의 영향력이 골격을 견고하게 지지한다.
- **MGA Bussia**: 검은 과실과 감초, 솔 향이 폭발한다. 특히 'Vigna Pian Polvere'는 압도적인 응축미를 대변한다.
- **MGA Ginestra**: 'Vigna Pajana'는 조화로운 산도와 화사한 과실미, 정교한 타닌이 만나 완벽한 균형을 이룬다.
- **MGA Le Coste di Monforte**: 정교한 구조와 질감이 일품인 최상위 품질이다.
- **MGA Mosconi**: 수풀과 스파이스 향이 독특하며 부드러운 첫 질감 뒤에 숨은 강력한 타닌이 돋보인다.
- **MGA Perno**: 과실 표현력이 탁월하며 품질의 강도가 시음 내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견고함을 보였다.
- **MGA San Giovanni**: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조기 숙성력을 갖춘 화사한 스타일이 매력적이다.

노벨로 (Novello): 강건한 타닌의 긴장감

- **MGA Panerole**: 복합적인 스파이스 향과 함께 입안을 가득 채우는 에너지가 인상적이다.
- **MGA Ravera**: 강한 타닌과 산도가 만들어내는 직선적인 힘이 압권이다.

로디 (Roddi): 화사함과 열기의 조화

- **MGA Bricco Ambrogio**: 농밀한 과실미와 함께 로디 특유의 화사함이 2022년의 힘과 만났다.

세라룽가 달바 (Serralunga d'Alba): 전통적인 힘과 깊이

- **MGA Badarina**: 농익은 과실미와 흙 내음이 조화롭고 장기 숙성 잠재력이 돋보인다.
- **MGA Brea**: 세라룽가 특유의 묵직한 타닌과 함께 검은 열매의 응축미가 폭발적이다.
- **MGA Cerretta**: 비누 향과 감초 향이 공존하며 골격이 매우 강하고 타닌의 수렴성이 돋보이는 고전 스타일이다.
- **MGA Fontanafredda**: 고전적인 우아함과 세밀한 타닌이 층을 이루는 정교한 구성을 보여준다.
- **MGA Gianetto**: 스파이시한 뉘앙스와 강건한 구조감이 일품이다.
- **MGA Lazzarito**: 버섯과 낙엽 등 깊이 있는 향이 매력적이며 구조감이 매우 탄탄하다.
- **MGA Ornato**: 잘 익은 검은 과실과 타르 풍미가 입안을 강력하게 채우며 빈티지의 열기를 긍정적으로 소화했다.
- **MGA Sorano**: 깊은 타르 향과 단단한 골격이 2022년 빈티지의 특징을 잘 드러낸다.

베르두노(Verduno): 고지대의 세련미

- **MGA Monvigliero**: 화사한 산도와 독특한 향신료 풍미가 매력적이며 베르두노의 상징다운 정교함을 유지한다.
- **MGA Riva Rocca**: 우아하고 세련된 선이 특징이며 2022년에도 신선한 산미가 돋보인다.
- **MGA San Lorenzo**: 정갈한 붉은 과실미와 섬세한 질감이 조화를 이루는 매우 좋은 품질이다.

라 모라와 바롤로 마을은 보통 토르토니안(Tortonian) 토양으로 이회토와 모래가 섞여 부드럽고 향기로운 와인을 만든다. 하지만, 최근 빈티지처럼 극심한 가뭄과 고온이 이어지면 상황이 달라진다. 수분이 부족해진 토르토니안 토양의 포도나무는 생존을 위해 성숙을 늦추거나, 오히려 과실의 당도보다 타닌의 응축도를 높이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라 모라 와인은 부드럽다'는 공식이 깨지고, 출시 직후 세라룽가만큼이나 완고하고 단단한 구조를 드러낼 수 있다.

앞서 로에로에서는 모래 덕분에 즉각적인 유연함을 보여줬다면, 바롤로 규정상 더 긴 오크 숙성을 거치는 라 모라의 네비올로는 포도의 잠재적 타닌이 오크의 타닌과 결합하여 안정화하는 데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느껴지는 빽빽함은 품질 문제가 아닌 라 모라 특유의 비단 같은 질감이 잠시 봉인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22년에 가장 인상적인 점은 폭염 속에서도 각 MGA의 개성이 굴절되지 않고 오히려 더 선명하게 도드라졌다는 사실이다. 지금 당장은 단단한 타닌이 벽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이는 곧 위대한 숙성을 예견하게 한다. 거대하고 단단한 골격이 정교하게 짠 실크로 변모할 시간을 허용한다면, 2022년 바롤로는 그 어떤 빈티지보다 깊은 서사를 선사할 것이다.

2021 빈티지 총평: 시련의 계절이 빚어낸 고전적 응축미

2021년은 피에몬테의 네비올로 생산자들에게 유독 가혹한 해였다. 봄철의 늦서리부터 여름의 폭풍과 우박, 그리고 이어지는 가뭄까지 급격한 기후 변화가 포도를 괴롭혔다. 하지만 이러한 시련은 역설적으로 수확량을 약 10% 감소시키며 포도알 하나하나에 놀라운 집중도를 부여했다. 특히 9월 하순부터 이어진 이상적인 일교차는 네비올로를 최상의 페놀릭 완숙도로 이끌었다.

결과적으로 2021년은 강력한 폴리페놀 함량과 탄탄한 구조감을 지닌, 장기 숙성을 위한 '고전적 밸런스'의 정석을 보여준다. 품질의 밀도는 어느 해보다 높으며,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줄 아는 수집가들에게 최고의 보상이 될 빈티지다.

바르바레스코 리세르바 (Barbaresco Riserva) 2021: 테루아의 선명한 인장

2021년 바르바레스코는 마을별 테루아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렸다. 리세르바급 와인답게 깊이 있는 구조감과 복합적인 아로마가 잔 안에서 층층이 펼쳐진다.

[코무네(Commune) 및 MGA별 분석]

바르바레스코(Barbaresco Commune): 정교한 구조와 미네랄리티

우아함과 구조감의 균형이 뛰어나며 석회질 토양 특유의 섬세함이 강조되는 지역이다.

- **MGA Martinenga**: 잘 익은 레드 체리와 오크, 타르 향이 조화롭게 얽혀 있다. 탄탄한 바디감을 바탕으로 다소 거친 타닌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훌륭한 골격을 갖췄다.
- **MGA Pora**: 새 오크에서 기인한 바닐라, 원두의 풍미가 강렬하다. 검붉은 열매와 포푸리 향이 어우러지며, 고운 타닌과 뛰어난 구조감이 장기 숙성 잠재력을 증명한다.

네이베(Neive): 야생적 개성과 웅장한 힘

바르바레스코 코무네 중 가장 힘이 있고 풍부한 스타일을 대변한다.

- **MGA Basarin**: 2021년의 응축미가 야생적인 개성으로 발현되었다. 사냥고기와 가죽의 뉘앙스 등이 느껴지며 힘이 넘친다. 검은 과실과 강력한 타닌이 중심을 잡는 남성적 스타일이다.
- **MGA Gaia-Principe**: 가죽, 버섯, 트러플 등 숙성에 따른 3차 향이 이미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높은 산도와 강한 타닌이 레드 체리, 스파이스와 어우러진 수준 높은 품질을 보여준다.
- **MGA Rivetti**: 잘 익은 붉은 열매의 풍미가 주도적이다. 타닌과 산도가 높지만 질감이 유연하며, 수풀과 허브의 뉘앙스가 뒷받침되는 정교한 스타일이다.

블라인드 시음을 통해 확인한 2021년 네비올로는 공식 리포트의 분석대로 '높은 산도'와 '단단한 타닌'이 지배적이다. 특히 리세르바급 와인들은 가죽, 버섯, 타르 등 복합적인 풍미가 이미 발달하기 시작했는데도, 입안에서의 구조감은 여전히 철갑을 두른 듯 단단하다.

2021년은 생산량의 손실을 품질의 밀도로 보상받은 해다. 시련이 빚은 이 농축된 와인들은 지금 당장의 화려함보다는 시간이 흐른 뒤에 보여줄 웅장한 진화를 약속한다. 고전적인 네비올로의 엄격함과 그 속에 숨은 화사함을 동시에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2021년은 놓쳐선 안 될 선택지다.

[사진 제공: 알베이사]

2020 빈티지 총평: 풍요로운 수분이 빚어낸 우아한 고전미

2020년은 온화한 겨울과 적절한 시기의 봄비로 시작되어, 포도나무가 생리적으로 발달하기에 이상적인 조건을 갖춘 해였다. 특히 5~6월의 잦은 비는 토양 깊숙이 충분한 수분을 저장해주었고, 덕분에 뜨거운 여름철에도 포도나무는 수분 스트레스(Water stress) 없이 건강하게 성숙할 수 있었다. 네비올로는 9월 하순부터 최적의 당도에 도달했으며, 밤낮의 선선한 기온차 덕분에 우수한 폴리페놀 축적을 이뤄냈다. 결과적으로 2020년은 매우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며, 특히 장기 숙성용 와인에서 테루아의 순수함을 가장 우아하게 드러내는 빈티지로 정의된다.

바롤로 리세르바(Barolo Riserva) 2020: 테루아의 선명한 투영

2020년 바롤로 리세르바는 풍부한 수분 덕분에 과실의 순수함이 잘 보존되었으며, 마을별 지질학적 특성이 아주 선명하게 투영되었다.

[코무네(Commune) 및 MGA별 분석]

바롤로(Barolo Commune): 전통적인 균형과 미네랄

점토질과 석회질이 섞여 구조감과 화사함이 동시에 나타나는 지역이다.

- **MGA Sarmassa**: 2020년 빈티지의 장점이 가장 잘 드러난 사례 중 하나다. 싱그러운 체리와 석회질 토양 특유의 미네랄리티가 긴 여운을 선사한다. 포푸리, 블랙티 등 다채로운 아로마와 함께 '즙(Sap)'이 느껴지는 훌륭한 밸런스를 갖췄다.

카스틸리오네 팔레토(Castiglione Falletto): 힘과 우아함의 완벽한 균형

라 모라의 섬세함과 세라룽가의 강건함이 만나는 지점으로, 가장 완벽한 균형미를 자랑한다.

- **MGA Scarrone**: 감초, 수풀, 가죽 등 전형적인 숙성 향과 드라이한 타닌이 인상적이다. 약간의 브렛(Brett) 뉘앙스가 스치지만, 빈티지 특유의 높은 산도가 이를 잘 지지하며 균형을 맞춘다.
- **MGA Villero**: 오크 향과 함께 쿰쿰함, 휘발성 산미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검은 열매 풍미가 중심을 잡는다. 2020년 특유의 좋은 산도와 타닌의 조화가 돋보인다.

몬포르테 달바 (Monforte d'Alba): 웅장한 구조와 깊이

강력한 타닌과 묵직한 바디감, 긴 여운을 가진 장기 숙성형 와인의 본고장이다.

・ **MGA Bussia**: 2020년의 풍부한 폴리페놀이 부시아의 강력한 구조와 만났다. 포르치니, 낙엽, 담배 등 복합적인 아로마가 층층이 쌓여 있으며, 짭짤한 미네랄리티와 부드러운 질감이 조화를 이루는 매우 우수한 품질을 보여준다.

베르두노(Verduno): 화사한 향기와 정교함

바롤로 지역 중 가장 북쪽에 위치하여 섬세한 아로마와 화사한 산미가 돋보인다.

・ **MGA Monvigliero**: 베르두노의 상징적인 밭답게 간장, 버섯, 삼나무 등 복합적인 3차 향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붉은 과실 풍미가 지배적이며, 아직 어린 상태임에도 베르두노 특유의 정교한 선을 잘 유지하고 있다.

블라인드 시음을 통해 확인한 2020년 바롤로는 공식 리포트가 예견한 '높은 산도 보존'과 '우수한 폴리페놀 축적'을 고스란히 증명했다. 여름의 열기에 산도를 잃지 않은 덕분에, 리세르바급 와인인데도 신선함과 생동감이 살아있다.

2020년은 '물의 빈티지'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풍부한 수분 공급이 와인에 어떻게 생동감을 불어넣었는지 보여준다. 각 MGA의 개성이 폭염에 묻히지 않고 투명하게 드러난 점이 인상적이다. 지금 당장 마시기에도 매혹적이지만, 10년 뒤 이들이 보여줄 우아한 변신은 더욱 기대된다.

[사진 제공: 알베이사]

네비올로 프리마 2025: 4개년 빈티지 전략 차트

빈티지	대상 와인	핵심 성격	권장 시음 시기	셀러 가이드 (Buying Tip)
2023	로에로 / 바르바레스코	세련된 생동감	3~8년 이내	접근성이 좋아 조기에 즐기기 최적
2022	바롤로 (출시 예정)	압도적 골격	10~20년 이상	장기 숙성을 위한 '왕 프리메르' 타겟
2022	로에로 리세르바	강건한 농축미	7~15년	가뭄이 빚어낸 이례적인 힘과 구조감
2021	바르바레스코 리세르바	고전적 엄격함	15년 이상	시련을 이겨낸 수집가용 고전 빈티지
2020	바롤로 리세르바	우아한 순수함	7~12년	풍요로운 수분이 만든 테루아의 투명함

3일간의 블라인드 시음은 단순히 와인의 점수를 매기는 과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우박이라는 변주곡 속에서 피에몬테의 포도나무들이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확인하는 정밀한 추적이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가 마주한 4개년의 빈티지는 각각 다른 높이에서 테루아를 노래했다. 풍요로운 수분으로 우아함을 뽐낸 2020년, 시련을 응축해 고전적 엄격함을 완성한 2021년, 극한의 가뭄 속에서 압도적인 골격을 빚어낸 2022년, 그리고 반전의 일교차로 세련된 생동감을 얻은 2023년까지. 기후 위기는 테루아의 경계를 흐리기는커녕, 오히려 품종의 위대한 적응력을 빌려 각 MGA의 개성을 더욱 날카롭게 벼려놓았다.

사실 현장의 공기는 때로 당혹스러웠다. 우리가 신봉하던 전설적인 이름들이 빈티지의 가혹함 앞에 민낯을 드러내기도 했고, 생소한 생산자의 이름 없는 밭에서 예상치 못한 전율을 느끼기도 했다. 단단한 2022년의 벽을 두드리다 만난 2020년 리세르바는 마치 폭풍우 뒤의 평온함 같았다. 불과 2년의 시간이 네비올로를 얼마나 다르게 만드는지 몸소 체험한 순간이었다. 모든 마을, MGA 특성을 다 알지 못하고, 경험마저 부족하지만, 마을이나 MGA가 바뀌면 어김없이 와인들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네비올로의 위대함이란 이런 게 아닐까.

[사진 제공: 알베이사]

셀러를 위한 최종 제안

- 지금 당장의 화사함을 즐기고 싶다면: 2023년의 로에로나 바르바레스코, 그리고 2020년의 바롤로 리세르바가 정답이다.
- 시간의 마법을 믿는 수집가라면: 2021년의 바르바레스코 리세르바와 2022년의 바롤로 MGA 와인들을 셀러 깊숙이 잠재워 두길 권한다.

뻔하지만 언제나 맞는 말을 또 하자면, 결국 좋은 와인은 좋은 땅과 인간의 인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내한 시간이 만드는 합작품이다. 2025년 네비올로 프리마가 우리에게 건넨 144개의 잔 속에는 변화하는 기후에 굴복하지 않고 매해 새로운 정답을 써 내려간 랑게와 로에로의 자부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당신의 셀러에 담길 한 병의 네비올로가 이 거대한 서사시의 가장 아름다운 한 페이지가 되길 바란다.